

〈도둑맞은 책〉의 멈추지 않는 도전 연극, 웹툰, 소설... 해외 진출까지 다방면으로 활약하다

글 이민우 기자(news@newspeak.kr)

콘텐츠산업계에선 요즘 'IP 융합'이 대세다.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산업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원천스토리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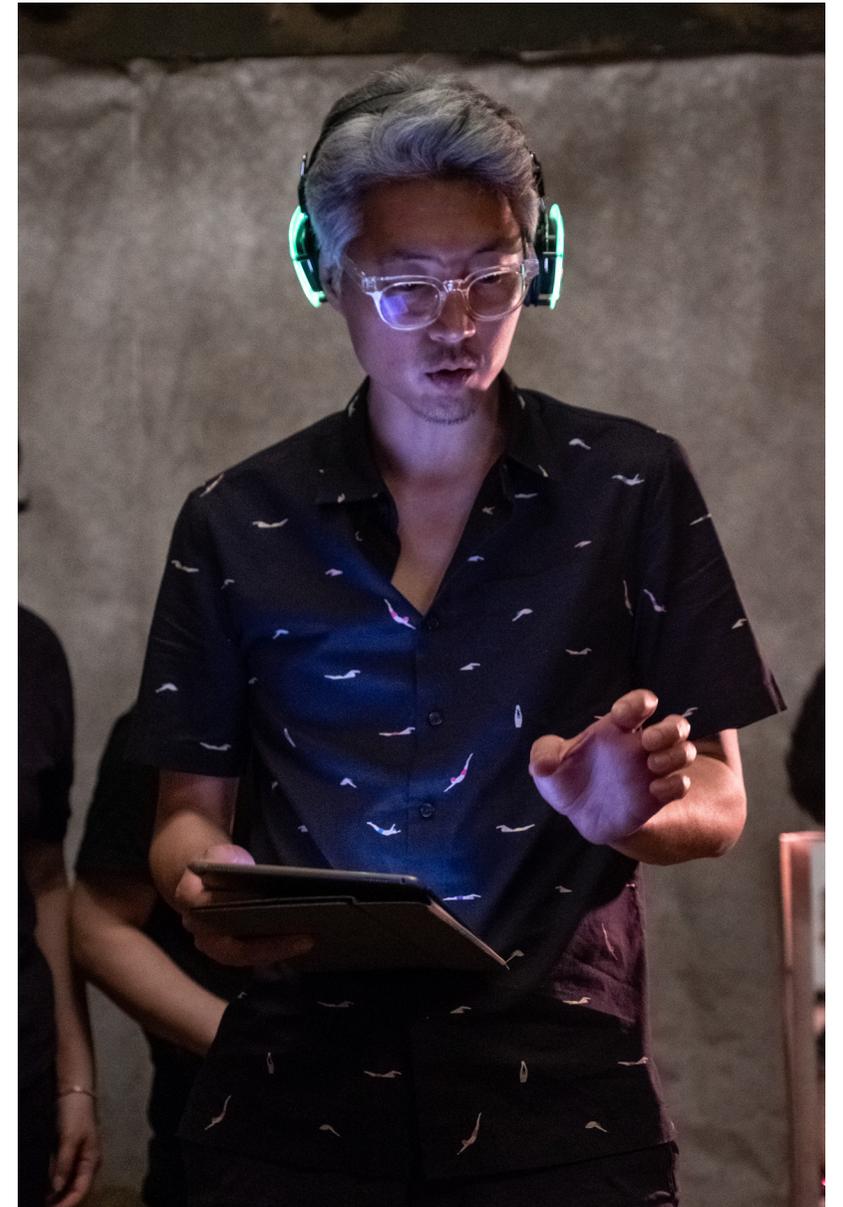
그런 면에서 올해 초 소설로 출간된 〈도둑맞은 책〉은 IP융합 콘텐츠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작가 유선동 영화감독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연출가로 탄탄한 경력을 쌓으며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열을 과시해왔으며 이제 소설에도 발을 들였다.

유 감독이 영화계에 이름을 알린 작품은 감독을 맡았던 단편 〈VS〉다. 〈VS〉는 '2001년 제1회 디지털 영상제' 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제2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아마추어 부문 대상, '2002년 제2회 미국 블랙마리아 영화제' 감독상(The Director's Award) 등 상을 휩쓸며 주목받았다.

유 감독은 일찌감치 시나리오 작가로도 데뷔했다. 류승환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아라한 장풍대작전〉(2004년)을 통해서다. 이후 한석규 주연 영화 〈미스터 주부퀴즈왕〉(2005년)을 통해 장편영화감독으로 데뷔해 섬세하고 위트 있는 연출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영화 〈고사 두 번째 이야기: 교생실습〉, 드라마 〈뱀파이어 검사(시즌2)〉 등의 작품을 연출했으며, 영화 〈내 심장을 쏴라〉 등의 시나리오를 썼다.

유 감독의 경력 못지않게 〈도둑맞은 책〉의 이력도 제법 화려하다. 원작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 수상작이다. 이후 이 스토리는 연극과 웹툰으로 먼저 선을 보였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대상 시상식 당일 실종된 뒤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 〈도둑맞은 책〉은 2014년 초연 이후 해마다 충무아트홀, 동양예술극장 등에서 꾸준히 관객을 만나고 있다. 기존의 공연문법을 깨는 신선한 내용과 탄탄한 구조로 즐거움을 선사한 이 작품은 입소문을 타고 예매사이트 랭킹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심리드라마 연극'이란 설명이 어울리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자연스레 연기력이 탄탄한 실력파 배우들도 배역에 욕심을 보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모바일로 연재된 웹툰 〈도둑맞은 책〉도 인기를 끌었다. 웹툰 버전은 여러 영화 및 드라마의 스토리보드를 담당했던 베테랑 작가 이규희의 그림과 어우러져 한 층 더 스릴러다운 매력을 과시하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완성도 높은 캐릭터와 스릴 있는 스토리의 결합으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 이 작품은 학산문화사에서 3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판됐다.

유 감독은 "연극의 경우 〈도둑맞은 책〉 배역을 맡은 뒤 스타덤에 오른 배우도 있고, 유명한 배우들께서도 많이 출연해 관객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다"면서 "웹툰, 만화책도 상업적 성공은 크진 않지만 끊임없이 공감해 주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서점 주인이나 도서관 사서들이라면 질색할 만한 작품 제목에 얽힌 독특한 사연도 풀어냈다. '도둑맞은 책'이라는 제목에서 '책'은 단행본이나 잡지 등 일반적인 의미의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뜻한다. 시나리오를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화계 은어다. 유 감

독은 “영화인들이 유일하게 읽는 ‘책’이 시나리오이다 보니 나온 표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한다. 유 감독은 “결국 책을 훔치고 도둑질 당하는 얘기인데, 에드거 앨런 포의 ‘도난당한 편지’라는 작품의 분위기를 감히 따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면서 “처음엔 ‘도난당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할까 싶기도 했는데, 소설가 정이현씨가 ‘도난당한 책’보다는 ‘도둑맞은 책’이 더 어감이 좋다고 해 바꾸게 됐다”고 했다.

연극, 만화에 이은 결실이 바로 스릴러 소설 〈도둑맞은 책〉(도서출판 손안의책)이다. 소설은 웹툰과 연극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기존 작품보다 더욱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스릴러적 쾌감을 선사한다. 영화처럼 빠른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문장, 실제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에 촌철살인 같은 대사들도 장점으로 꼽힌다. 〈살인의 추억〉, 〈타짜〉등 영화 작품의 제작자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를 역임한 차승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도둑맞은 책〉은 한국형 스릴러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다. 마지막 장까지 눈을 땔 수 없는 마력(魔力)의 책”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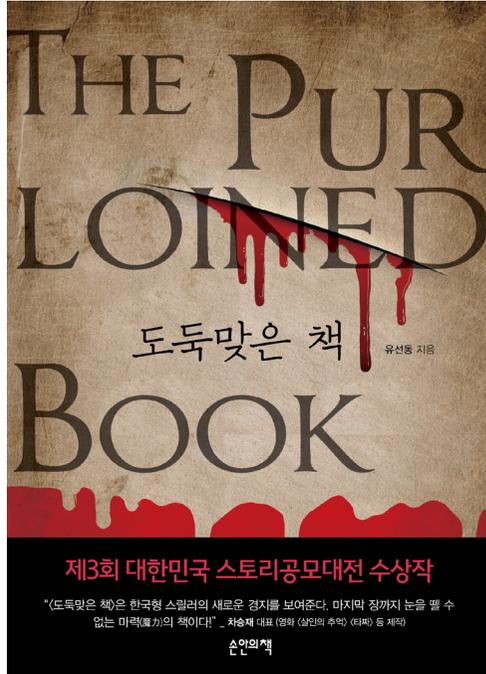
최근엔 소설의 해외 출간 계약도 성사됐다. 유 감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서점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와 출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놉시스를 통해 계약했다”면서 “샘플 번역이 진행되면 더 많은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다양한 이력을 만들었지만 유 감독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예술은 먹고 살고 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거나 생존의 급선무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발 공장 하실 때 어깨 너머로 보니까, 신발 만드는 일도 시나리오 쓰는 것 못잡게 송고한 노동이더라고요. 예술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작 활동의 매력에 대해 유 감독은 “새벽 6시까지 촬영한 뒤, 술 한 잔 하며 그날 촬영 얘길 나누는 것은 즐거운 기억”이라며 “남들 출근할 때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볼 수 있는 것도 남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털어냈다.

유 감독은 “제가 쓴 이야기가 규모나 공간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같은 규모는 아니다. 사람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작품에 대한 철학을 전했다. 특히 “영화나 연극이 만들어져 관객과 교감하고,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볼 때도 정말 즐겁다”면서 “제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화되고, 제가 쓴 대사를 배우들이 멋있게 연기해 줬을 때도 기분 좋다”고 밝혔다. 유 감독의 창작이 맺는 알찬 결실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❶



INTERVIEW

유선동 감독

“작품 통해 대중과 오랫동안 호흡하고 싶어”

〈도둑맞은 책〉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누구나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갖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심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작가이자 연출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지점들이 작품 주인공에게 적지 않게 투영됐죠. ‘본인 얘기 아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훔친 적도 없고요. 작품에 나오는 사람 및 상황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촬영 중인 영화 〈0.0MHz〉는 어떤 작품인가요?

다음(daum)에 연재됐던 장작 작가의 웹툰 〈0.0MHz〉가 원작인 공포영화입니다. 주연배우는 정은지, 이성렬이고 촬영이 한창입니다. 빠르면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 개봉하게 될 거고요. 초자연적 현상을 추적하는 탐사동호회 0.0MHz 회원들이 흉가에서 겪는 사건을 다룬 공포물이지요. 영화 찍으면서도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앞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도둑맞은 책〉을 꼭 영화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연극, 웹툰, 소설로 콘텐츠가 알려지면서 영화화에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도둑맞은 책〉처럼 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로틱 스릴러를 만들고 싶어요. 표현 수위가 세거나 잔인하다고 재밌어지는 않는 것 같고, 에로틱하면서 스릴 있는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도둑맞은 책〉을 웹툰으로 만들었던 것도 콘진원에서 학산문화사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콘진원에서 운영하는 ‘스토



리움(<https://storyum.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소설 출간에 이르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이야기가 연극, 만화, 소설로까지 만들어지고, 또 해외에 수출까지 하게 됐으니 고맙죠.

영화와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작품을 통해 대중들과 오랫동안 호흡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부죠. 영화나 시나리오, 소설 중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 중에 대박이 나는 작품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창작자로서 대중들과 꾸준히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